

# 설 가정 예배

예배의 부름 ..... 인도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찬 송 ..... 64장 ..... 다 같이  
공 동 기 도 ..... 다 같이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여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희망에 찬 발걸음을 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일상의 분주함과 인생의 시름을 잠시 잊고,  
가족, 친지와 더불어 삶의 기쁨을 추억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시어 저희 마음을 돌아보시고  
이곳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어른들에게서 가문의 신앙을 전수 받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서 꿈꾸고 도전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 가족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성 경 봉 독 ..... 역대하 34:29~33 ..... 말 은 이  
말 씬 ..... 여호와 앞에서 세운 언약을 따라 ..... 말 은 이  
권 면 ..... 말 은 이

어른 한 두 분이 선조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신앙적 권면을 나눕니다.

찬 송 ..... 559장 ..... 다 같이  
주 의 기 도 ..... 다 같이

## 여호와 앞에서 세운 언약을 따라

문귀화 목사

요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고작 여덟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할 연령이니 그에게 무슨 정치철학이 있어 제대로 된 통치를 했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를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대하 34:2)

그는 재위 12년에 유다 땅 전역을 돌며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신상과 우상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또 재위 18년에는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성전 수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사장 힐기야가 헌금함에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을 전달받은 왕은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고 비통해하며 신하들을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합니다.

왕이 비통해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모세가 전한 율법책의 내용대로라면, 이제 유다에 참혹한 재앙이 임하리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자초한 조상을 원망하는 대신, 그는 서둘러 하나님께 자기의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홀다는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대하34:27)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요시아의 시대에는 유다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가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시아는 이제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를 모두 불러 모아 성전에서 발견한 책을  
읽어준 후에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과연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라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없애고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구약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계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앞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유다에 예정되었던  
심판을,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되돌리고자 하는 삶의 개혁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시아가 지녔던 자세가 올해 우리 가족과 가문이 따르는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는 무한한 감사로, 근심스럽고 마음 아픈 일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직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서로 보살피고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모두에게  
흐르게 합시다.

## 2022년 설 가정예배 모범



설은 음력으로 새해 첫 날을 기념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설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립시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포연동교회